

제2회 재외동포NGO활동가 대회 (2005년 11월 1일 화 ~ 4일 금)

- 주최 : KIN(Korea International Network)
 - 주관 : 제2회재외동포NGO활동가대회추진위원회(10개 단체)
동북아두레공동체운동, 동북아평화센터, 동북아평화연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전남대학교세계한상문화연구원,
중국동포의집·외국인노동자의집, 중국동포타운신문,
해외교포문제연구소, 한국청년연합회(KYC),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
 - 후원 : 재외동포재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코리아포커스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시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활동나눔1-1

조선족 사회의 새로운 움직임

유병수 | 차이나코리아닷컴 편집국장

서론

필자는 1998부터 조선족과 인연을 맺게 되었고, 1999년에는 조선족의 정체성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연변대학에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필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분야는 조선족의 문화정체성에 관한 것이다. 그동안 조선족이 어떻게 전통문화를 유지해 왔으며 또 당면한 조선족사회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며 그들이 정체성을 발전시켜나갈 것인지 작은 곳에서 희망을 찾아보고자 한다.

민족의 숨결

중국에 정착하게 된 이들은 같은 고향에서 온 사람들, 혹은 같은 고향이 아니더라도 같은 조선사람끼리 공동체를 이루고 생활했기 때문에 한반도에서의 생활방식과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었다. 1920년대 전반까지도 청왕조는 토지를 매개로 치벌역복을 하고 청조에 귀화할 것을 강요하였으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는 조선 이주민들이 피땀흘려 개간한 땅을 몰수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조선이주민 중 대다수는 청왕조의 강요에 굴복하지 않았고 민족의 전통을 지키며 조선민족의 새로운 공동체를 일구어 나갔다. 조선족은 다른 민족이 조선족마을에 들어오는 것을 철저히 통제하였으며 조선족처녀가 다른 민족에게 시집을 가는 것도 용납하지 않았다. 지금은 다른 민족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개편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다른 민족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 조선족의 이러한 폐쇄성과 타민족에 대한 배타성은 조선족의 문화적 전통을 유지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

조선족의 생활방식과 습관이 유지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은 동북지역에서 벼농사를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다. 조선족이 이주하기 이전시기까지 동북지역에는 한전농사만 있었을 뿐 벼농사는 없었다. 하지만 조선족은 황무지를 개척하고 관개시설을 갖추어 벼농사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조선족의 풍습은 예로부터 벼농사와 깊은 관련을 가지고 형성되어 왔었기 때문에 동북지역에서 벼농사의 성공은 조선족이 제 민족의 풍습을 유지시켜 나가는 데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된다.

조선족으로 구성된 마을의 형성과 벼농사의 가능이 조선족의 풍습을 유지해 나가기 위한 외적 토대를 형성했다면 향도계(香徒契)¹⁾의 조직은 조선족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고 민족풍습을 지켜나가도록 하는 내적 체계가 되었다. 원래 향도계는 상사가 발생했을 시에 장례를 도맡아 하는 민간조직이었으나 조선족사회에서는 향도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성격을 지니

게 된다.

조선족 마을의 행정기구가 건전치 못하여 상여계가 상례와 장례 행사만 처리한 것이 아니라 마을의 공중 도덕과 질서를 유지하는 면에서도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동네에서 싸우거나 부모를 학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상여계에서 그 사람을 불러다가 바지를 벗기고 떡구유에 엮어놓고 불기를 쳤다.¹⁾

위에서처럼 장례의 일 뿐만 아니라 마을의 공중도덕과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도 담당한 것이다. 향도계의 우두머리를 ‘존위(尊位)’라 하는데 존위는 연세가 많고 덕망이 높은 노인이 담당했다. 존위뿐만 아니라 향도계의 임원은 주로 노인들이 맡게 되었으며 젊은이들은 경험 많은 노인들의 말을 따랐다. 노인들이 중심이 된 향도계의 운영은 자연스럽게 노인들이 한반도에서 가져온 전통과 풍습을 젊은이들에게 전수할 수 있었고, 오랜시기 동안 조선족이 제 풍습을 잃지 않고 계승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조선족이 집단촌을 형성하고, 벼농사를 짓고, 향도계를 조직한 것은 이주초기 조선족의 전통문화를 유지, 발전시키는데 있어서도 커다란 몫을 담당하게 된다. 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이후에도 조선족은 제 민족의 풍속 습관에 따라 생활할 수 있었고,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성립은 조선족공동체를 더욱 공고화하였다. 또 조선과의 친척방문, 경제교류 등을 통해 민족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사회주의체제로의 변화는 일부 관념적이고 주술적인 신앙의례에 영향을 주어 전통문화를 축소시켰고, 더구나 1966년부터 10년 동안 ‘4인무리’에 의해서 극좌적으로 진행된 문화대혁명은 민족적이고 전통적인 풍속을 제한하였기 때문에 조선족의 전통문화는 수난을 받게 된다. 4인무리에 의해서 주도된 문화대혁명 기간에는 대한족주의에 기초해서 소수민족에 대한 융합정책이 극좌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민족평등과, 민족문화의 보존은 물론 심지어 소수민족의 문자와 언어 사용에도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

신랑의 옷차림을 보면 사모관대는 봉건시대의 옷이라 하여 입지 못하고 양복은 서양옷이라 하여 입지 못하다보니 일률적으로 중산복을 입었으며 또한 혁명적 기풍을 나타내기 위하여 의복의 색깔도 국방색(군복색갈)을 택해야 했다. 신부의 옷차림은 한복 혹은 중산복이었다.¹⁾

위의 내용은 당시의 조선족 결혼풍습을 소개한 것이다. 결혼예물도 사치스러워서는 안 되었기 때문에 옷이나 장식품을 넣는 것이 아니라 ‘모택동 저작’이나 호미와 같은 생산도구를 넣어 혁명성을 강조했다. 물론 모든 조선족의 결혼식이 위의 사례와 같이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농촌지역에서는 그래도 비교적 자유롭게 조선족의 풍속을 지켜나갈 수가 있었다. 그러나 문화대혁명시기의 전반적인 사회 기조는 민족성을 타파하고 계급성과 혁명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민족문화의 보존에 적지 않은 훼손을 가져다 주었다. 10년의 동란이 끝나고 1978년말 당중앙위원회 제11기 제3차전원회의가 열린 이후 중국은 개혁개방의 새로운 역사시기로 들어서기 시작했으며 문화대혁명기간 동안의 오류가 청산되고 민족간의 단결과 통합, 소수민족의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한 민족구역자치법¹⁾이 제정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소수민족은 자신들의 언어문자를 사용할 권리, 제정할 권리를 가지며, 민족풍습 습관을 보존할 자유를 가지며, 자체적인 교육제도와 교육과정을 만들 수 있다.”(제10

조)1)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혁개방과, 민족구역자치법의 실시는 조선족의 역사와 문화, 교육, 경제 등 다방면에 걸쳐 관심을 갖게 했으며 사람들의 생활상에서 이전의 민족습관을 되찾게 해 주었다.

조선족은 한반도에서 중국의 동북으로 이주하여 새로운 자연환경과 사회적·정치적 환경 속에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제 민족의 문화를 지켜왔으며, 아울러 타민족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조선족문화를 더욱 다양하고 풍부화 하며 발전해 왔다.

그렇다면 중국에서 오랜 시기 동안 조선족이 형성해온 그들의 문화정체성을 과연 무엇인가? 이에 대한 논의는 이미 많은 학자들에 의해 논의가 되어왔으며, 대략 세가지 정도의 견해1)로 집약되고 있다. 첫째는 지역적인 구별은 있어도 한국(한민족)민족의 문화와 차별이 없다는 것이고, 둘째는 조선족 문화는 중국문화의 일부이며 비록 근본은 한민족의 문화일지라도 그 내용에 있어서 한민족의 문화와 전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는 한민족의 문화와 중국문화의 특색이 함께 존재하는 이중적 성격의 문화가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조선족은 중국의 공민으로서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인 테두리 안에서 성장 발전해왔다. 때문에 한민족의 문화에 뿌리를 둔 조선족의 전통문화도 존재하고 중국문화도 존재하게 되었다고 보는 셋째 견해는 정판룡교수가 주장하며 90년대말까지 조선족사회의 주된 견해로 받아들여졌으나 최근 들어서는 조선족의 문화정체성을 이중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중국특색의 독특한 조선족문화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즉 오랜 시기 중국사회에 적응하면서 조선족만이 가진 독특한 문화정체성이 생겨났다고 보는 것이다.

조선족의 문화정체성에 대한 위의 견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어쨌든 한민족의 문화전통이 조선족 사회에 녹아들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어떠한 형태로 변형이 되었든 출발은 한민족의 문화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생각에 기초해서 조선족사회가 한민족문화공동체라는 테두리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조선족 사회에 대한 민족적인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차이를 인정하면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을 공유하고 발전시켜 나간다면 한민족문화공동체의 형성과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다.

너무도 어려운 문제

조선족은 이주초기부터 이미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중국으로 들어와 집거지를 형성하며 생활했고 민족교육을 실시해 왔다. 때문에 조선족은 제 민족의 언어와 생활습관을 유지하며 문화정체성을 지속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한 세기가 넘는 시간 속에서 조선족은 한족문화의 영향을 받게 되었고 조선족의 문화정체성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특히 산재 지구에 있는 조선족은 한족문화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문화정체성에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연변조선족자치주는 다른 지역에 비해 조선족의 문화정체성을 유지하며 한족문화의 영향을 적게 받고 있지만 인구의 감소, 교육환경의 변화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조선족문화정체성의 변화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조선족이 그동안 조선족의 문화정체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동력은 집거지를 형성하고 민족교육을 실시해 왔기 때문이다.1) 집거지 형성이 민족문화를 고스란히 보존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 주었다면 민족교육의 실시는 민족문화를 심화발전시킬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집거지와 민족교육에서 위기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연변자치주의 조선족 인구가 대도시나 해외로 이동함에 따라 조선족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또한 각 촌마다 있었던 조선족학교들이 인구의 이동으로 인해 문을 닫게 되어 한족학교로 진학하는 학생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아래의 표는 연변자치주의 소학교와 중학교가 점점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표12> 연도별 연변지구조선족중소학교수1)

	소학교			초급중학교		
	농촌	현진	성시	농촌	현진	성시
1989년	188	31	15	52	29	8
1995년	77	33	24	6	16	10
1998년	67	33	21	1	13	11
1999년	43	31	22	0	13	18

농촌에 있던 소학교는 10년 사이에 80%나 감소했으며 농촌의 초급중학교는 100% 감소한 실정이다. 농촌의 소학교는 폐교되더라도 비교적 가까운 곳에 통합된 학교가 생기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선족학교를 다닐 수 있으나 중학교는 사정이 다르다. 농촌에 중학교가 없다보니 현이나 시에 있는 학교로 진학을 하기 위해서는 현시로 나가서 기숙사 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 부모들에게는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되고 학생들 역시 기숙사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부모들은 이러한 문제로 인해 가까이에 있는 한족학교에 학생들을 보내려 하고 있으며 또한 ‘중국에서 잘 살자면 한어를 잘 배워야 한다’는 의식이 팽배해지면서 한족학교에 진학시키는 부모들도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조선족 학교가 감소하고 한족학교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면 조선어를 배울 기회를 잃게 되기 때문에 향후 조선족의 문화정체성을 유지하는데 커다란 문제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조선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민족교육에 대한 열의가 식고 한어교육을 중시하는 풍조가 높아지고 있다는 데 있다. 경제가 뒷받침되지 않는 정황하에서 이러한 추세를 막을 방법은 너무도 어려워 보인다.

민족교육의 위기 이외에도 인구의 감소, 가족의 해체, 농촌공동체의 붕괴 등도 조선족 사회가 안고 있는 커다란 문제들이다. 시장경제의 도입과 개혁개방은 사람들의 전통적인 혼인관과 생육관에 변화를 가져왔고 또 경제적인 이유 등 복합적인 문제가 겹쳐지면서 조선족의 인구성장은 현재 마이너스를 걷고 있다. 조선족인구의 마이너스성장은 조선족공동체의 해체라는 위기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이지만 경제적 지원과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쉽게 해결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가족의 해체는 자식들을 고향에 남겨둔 채 해외나 대도시로 노무활동을 떠나는 조선족이 늘어나며 발생하는 문제로 심각한 수위에 다다르고 있다. 해외 노무수출의 경우는 한번 출국하면 가족과 적어도 5년에서 10년은 헤어져 지내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부모의 고된 사랑을 받고 자라지 못하게 되며 자칫 위험한 길로 내 몰릴 수도 있는 것이다. 연변의 중소학교에서 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을 조사해보면 절반도 되지 못한다. 게다가 해외노무활동을 장기간 나간 부모들의 경우는 이혼률도 높아 아이들이 버려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그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

농촌공동체의 붕괴 역시도 해외노무수출과 대도시로의 이동이 가져온 결과이다. 농업에 종사하기 보다는 대도시나 해외로 나가 일을 하는 것이 경제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다보니 갈수록 고향을 떠나 타지로 이동하는 현상이 많아지고 있다. 농촌공동체의 붕괴는 조선족이 힘들게 개척하고 일구어온 동북3성의 터전이 한족의 손으로 이전되고 있다라는 점에서도 우리는 더욱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위의 문제들은 조선족이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는데 있어서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기에 시급한 대책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나 희망은 있다

조선족 사회가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필자는 최근 조선족 사회의 움직임을 보며 작은 기대를 가져보는데, 그것은 집중촌 건설과 합작사 건설, 그리고 유기농업 등 다양한 대안 농업의 시도들이 농촌을 중심으로 농민들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이다. 길림시 만용촌은 대표적인 집중촌의 하나로 공장을 유치하고 조선족 학교를 세우는 등 주변의 흩어진 조선족을 끌어들이 새로운 집중촌을 건설해 조선족공동체를 유지해 나가고 있는 곳이다. 이는 산재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움직임으로 조선족공동체의 재구성이라는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합작사 건설은 흑룡강성 아성시의 조선족농촌에서 처음 시작된 것으로 농민들이 주축이 된 주식회사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연변자치주에서도 처음으로 합작사가 섰는데 아래의 기사를 통해 어떠한 형태인지 알 수 있다.

일전 도문시 공급판매 합작사련합사는 량수진 하서촌에서 <<흙농농부산물합작사>>현판식을 가졌다. 이 합작사는 전 주에서 제일 처음으로 설립한 자발적인 주식제 농민경제합작조직이다. 주식은 토지와 돈이다. 이 합작사는 농촌가정의 도거리형식을 일층 완벽화하고 성숙시키는 조직으로 분산을 억제하고 경제조직력을 바탕으로 농호간에 상호보완을 하게 된다. 목전 70여세대의 농호가 이 합작사에 가입하고 토지 265.5무, 현금 4800원을 비축했다. 총금액(토지 무당 300원으로 계산)은 8만 4450원이다.

- 연변일보 9월 1일 기사 -

합작사는 1953년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제1차 5개년 계획을 집행하면서 사회주의적 개조가 이루어지고 개인소유가 폐지되면서 설립되었던 것이다. 합작사는 78년 개체농업으로 전환하면서 사라졌으나 최근 들어 농민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고향을 지키고 농촌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 새롭게 일어서고 있는 것이다.

현재 조선족농촌에서는 유기농업 및 대안 농업으로 전환해 수입을 올리고 있는 농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흑룡강성에서는 조선족유기농업협회가 발족을 앞두고 있으며 이미 회원들간에는 서로의 유기농 경험을 교류하고 있으며 생산된 쌀을 공동판매할 것을 논의하고 있다.

이들은 해외로 노무수출을 가지 않고 고향에서도 땅을 지키며 돈을 벌 수 있다는 신심을 가지고 있으며 유기농업을 통한 조선족사회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차이나코리아닷컴의 이동춘 회장은 연변두레마을로부터 기증받은 30만평의 땅에 중국 최초의 생태마을(촌명 '민들레촌')을 건설하기 위해 투신하고 있기도 하다. 이동춘회장은 '민들레촌'을 중국의 모범적인

생태마을로 만들어 조선족이 초록민족으로 중국에서 이름이 나도록 하겠다라는 야심찬 포부를 가지고 있다.

농촌 경제가 활성화된다면 땅을 버리고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고 또 사라졌던 학교도 다시 생기며 조선족사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들이 조금이나마 해결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아래의 기사는 농촌을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고향으로 모여들고 있다는 희망적인 기사이다.

최근들어 상주시 하동조선족향 신민屯(광명촌 1촌민소조)은 해내외로 나갔던 촌민들 귀향붐이 일면서 날따라 흥성해가고 있다. 원래 50여 세대였던 이마을은 코리안드림과 도시진출 바람으로 한 때는 10여 세대밖에 남지 않았는데 현재는 30세대개 돌아와 정착, 집을 수건하고 장식하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다. 80년대초부터 이 마을은 과학적으로 농사를 지은데서 벼수확량이 높아 린근에 소문난 부자마을로 촌민들 저금액이 향에서 최고였다. 그들은 논밭을 다루는 외에 인삼등 공예작물을 가꾸면서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꾸며갔다.그러다 90년대에 불어친 한국행과 도시진출바람을 경제에 눈이 일찍 뜬 이마을 사람들이 간과 할리 없었다. 하여 너도나도 한국행을 진행, 3세대를제외한 외 다 한국을 다녀왔는데 일정한 자금을 쥐게 된 사람들이 도시로 진출하는 바람에 한 때는 마을에 10여 세대밖에 남지 않아 폐屯이나 다름없게 되었다. 이 틈을 노려 부근의 한족들이 이 마을로 이사오려고 했다. “한세대가 남더라도 우리 마을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 당시屯장으로 있던 허길룡씨는 촌민들과 함께 ‘마을지킴이운동’에 나섰다. 한촌민이 한족에게 진빚 2만원을 갚지 못하여 집을 대신 내놓게 되자 허길룡씨는 “한족이 한가구, 두가구 들어오기 시작하면 막을길 없다”며 여러곳으로 뛰어다니면서 2만원을 빌려서 그 빚을 갚았다. 또한 그는 마을 인구를 확충하기 위해 외지로부터 조선족 이사회 9세대를 받아들였다. 이런 보람으로 신민屯은 오늘에 와 순수한 조선족마을로 거듭나게 되었다. 현재 이 마을은 20-40대(나이) 부부가정이 28여세대로 마을 호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전례없는 활기로 차넘치고 있다. 이들은 집을 새롭게 장식하고 논을 더 도급맡고 기타 처부항목도 찾고 있다. 이 마을은 57헥타르 논이 있는데 지금 전부 경작하고 있다. 마을을 보다 살맛나는 고향으로 가꾸어가기 위하여屯장 리창선씨는 촌민들을 이끌고 울퉁불퉁하던 158미터의 마을길을 반듯한 모래길로 변모시켜 놓았고 몇 년간 방치해두었던 관개수로도 깨끗이 수건, 정리해 놓았다. 마을에 돌아와 정착한 청년들은 “일정한 자금이 있다고 하여 무작정 도시진출을 시도하는 것은 무리다. 고향마을에서 유기벼농사를 비롯한 부가가치가 높은 작물을 생산하고 기타 항목도 경영한다면 도시인 부럽지 않은 생활을 할 수 있다.”며 신심 가득히 말하고 있다.

- 흑룡강신문 10월 24일 기사 -

조선족은 개혁개방 이전시기만해도 중국에서는 문화민족으로 이름이 나 있었다. 그러나 개혁개방과 함께 자본주의시장경제가 도입되면서는 조선족의 이미지가 부정적인 모습으로 많이 비춰지기 시작했는데 중국에서의 조선족의 위상을 높이고 중국의 어엿한 주체로 살아나가기 위해서 재도약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마침 이동춘회장의 초록민족으로 거듭 나자라는 주장은 아주 설득력이 있고 현실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에서는 현재 녹색식품이 각광을 받고 있으나 가짜 녹색식품이 많다보니 정말 믿고 안심하며 먹을 수 있는 녹색식품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맞춰 땅과 사람을

살리는 환경민족, 초록민족으로서 조선족이 앞장 서 나간다면 중국사회에 큰 호응을 받을 것이며 조선족이 중국에서 새롭게 인식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본다.

현재 유기농업을 진행하고 있는 동북3성의 조선족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해 서로의 정보를 교류하고 또 농촌을 지키려는 움직임을 활발히 해나간다면 더욱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해 본다.

농촌에서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있는 것처럼 교육현장에서도 작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마냥 사라져가고 있는 조선족 학교를 보며 한숨짓고 또 한족학교로 가는 아이들을 탓할 것이 아니라 현재 조선족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라도 제대로 된 교육을 해보자라는 것이다. 조선족 학교에서는 그동안 중국어를 가르치는 것도 조선족교사가 담당해 왔으나 최근에는 한족교사를 채용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필자는 조선족이 아무리 중국어를 잘 한다 해도 한족교사보다는 부족한 면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보며 그러한 의미에서 조선족 학교에서 중국어 교사를 채용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 생각한다. 조선족 학교에 가서도 한어를 충분히 잘 배울 수 있다라는 인식을 학부모들에게 심어준다면 한족학교로 옮겨가는 현상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조선족학교에는 조선족 학생들에게 조선어문을 선생님들이 있다. 조선어문은 한국의 국어에 해당하는 것인데 최근 조선어문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민족의 언어와 문화 대해 좀더 제대로 가르치고자 조선어문교사모임을 만들어 노력하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작은 시도이지만 조선족 청소년들이 조선족의 문화정체성을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는데 있어서 큰 불씨가 될 것이라 본다. 올 여름에는 한국의 국어교사와 중국의 조선어문교사들이 모여 심포지움을 열기도 했는데 서로의 교육이 어떻게 다른지 또 무엇이 같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며 또 한국의 교수법을 보며 조선어문교사들이 많은 자극을 받기도 했었다.

민족교육의 위기가 커다란 사회문제로 되고 있기는 하나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희망을 만들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결론

조선족은 150여 년의 긴 세월동안 자신들의 민족정체성을 잃지 않고 중국 속에서 자신들의 특색을 살리며 발전해온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러하기에 현재 당면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스스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으리라 믿는다. 농촌공동체를 지켜나가려는 농민들의 움직임과 또 민족교육을 지켜나가려는 조선어문교사들의 움직임에서 필자는 조선족사회가 당면한 어려운 문제들이 조금씩 풀리며 그들의 정체성이 지속 발전되어 나갈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본다.